

지역재단(Community Foundation)포럼 "미국 지역재단 웹사이트 분석" 녹취록 전문

사회: 지역재단 5회 포럼, 박고운 아름다운 재단 국제협력연구팀장의 진행으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박고운(아름다운 재단 국제협력연구팀장) :

안녕하세요

인사드릴게요 저는 아름다운 재단 국제협력 연구팀장 박고운 이라고 합니다.

포럼 5회째인가요, 오늘은 외국에 있는 지역재단의 웹사이트와 지역 재단의 특성, 지역재단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분들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제가 간접적인 경험을 하였다 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 지역재단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탐방하고 실무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홈페이지를 보면서 소개하겠습니다.

되도록 빠르게 진행하고 영문해석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트 아웃을 보면 5곳의 재단이 있죠.

The San Francisco Foundation (이하 '샌프란시스코' 표기)

The New York Community Trust (이하 '뉴욕' 표기)

Robin Hood Foundation (이하 '로빈훅' 표기)

The Funding Exchange (이하 '펀딩익스체인지' 표기)

Taproot Foundation (이하 '탭루트' 표기)

이러한 재단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재단들을 뽑은 이유는, 미국의 재단들이 가장 활성화 되어있고 규모도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지역재단의 특성을 가장 잘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8, 9월에 해외 탐방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위해서라도 오리엔테이션 차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5곳 모두 각각의 특성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각기 다른 지역에서 각각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발표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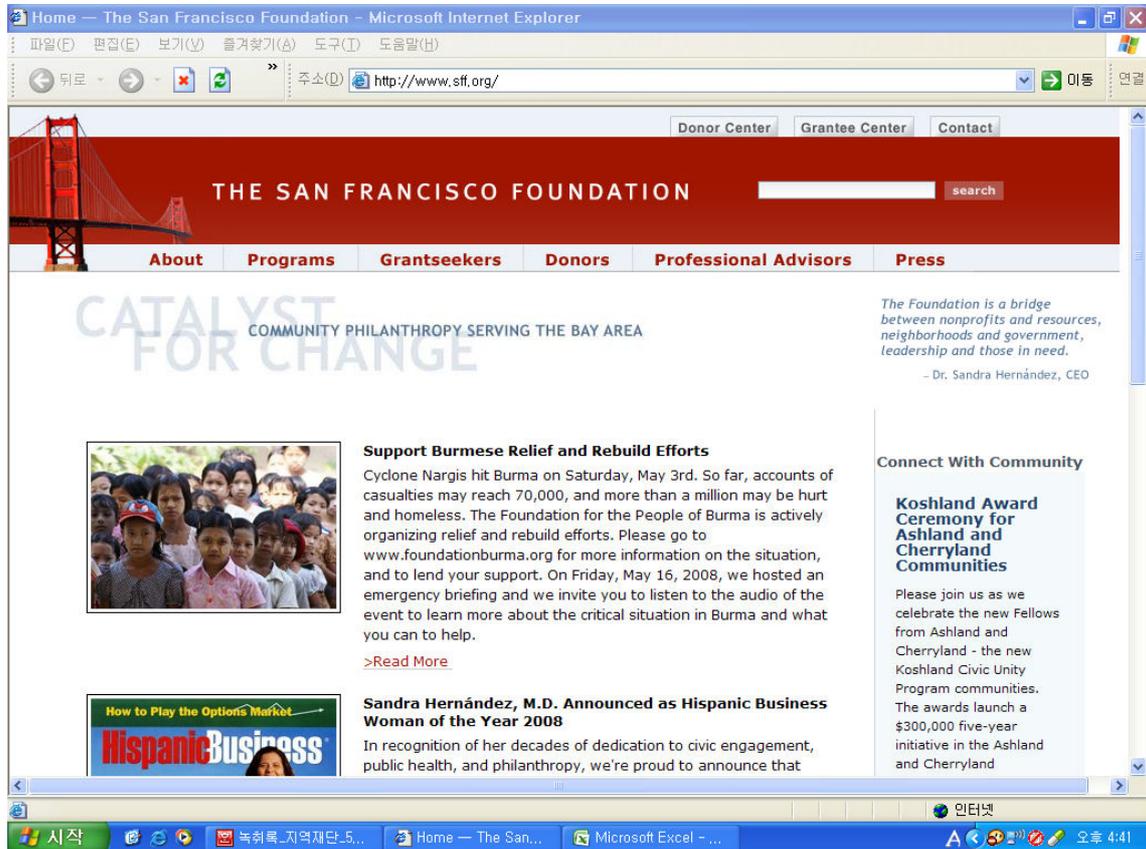
첫 번째, **The San Francisco Foundation** 보겠습니다.

직접 가보지 않고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집에 가서 보기 편하시라고 핸드아웃을 자세히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우선 이 곳의 특징은 미국 최대 규모의 재단 중 하나라는 것과 기금의 규모가 크다는 것입니다. 매년 89억원 정도를 배분하는 큰 재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물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재단이구요, 다양한 인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기금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보다 다양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한국에서는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족 시킬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재단은 보통 그 지역을 재단의 이름으로 합니다. 빌게이츠 파운데이션은 개인 이름을 댄지만, 미국의 대부분의 재단들은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재단의 이름만 보고도 그 지역을 얼마나 아우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만 봐도 알 수 있지만,

(홈페이지 설명)

[About]은 지역재단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고요,

[Programs]은 프로그램(활동)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Grantseekers]에서는 이러한 활동의 수혜자들을 볼 수 있고요,

[Donors]에서는 기부자들에 대해 볼 수 있습니다.

[Professional Advisors]에서는 전문적인 회계사와 같은 전문가들이나 부자 기부자들을 어필하기 위해 어떤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떠한 워크숍을 합니다." 라든가, 부자들 같은 경우는 기부를 했을 때 얼마나 세금공제를 받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들을 하며, 이런 것들을 통해 부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Press]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홈페이지 와보셔도 이런 프로그램을 차용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8월에 실무자 워크숍이 있는데요, 재단을 만들 때는 이 재단을 왜 만들어야 하는지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사명(mission)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샌프란시스코의 미션을 보시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시민들의 리더십을 북돋으며,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을 동원하고 변화의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 곳 미션은 굉장히 커요, 좋은 것은 다 한다, 라고 할 수 있죠. 규모가 큰 재단

은 브로드한 미션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규정합니다. 보통 다른 재단들은 어필할 내용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협소한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는 돈이 많고, 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지역재단을 만들면 그 사명을 어디에 둘 것인지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About]

About	Progra
About Our Work	
What's New	
Who We Are	
Calendar	
Publications	
Our Financials	
Employment Opportunities	
Contact & Directions	

[About]을 보시면, [Our Financials]에서는 그 재단에서 우리는 어떻게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줍니다. 분기별로 재정상황을 업데이트해서 국세청에서 이것들을 오픈하기 때문에 도너들이 언제나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디에프로 프린트 아웃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돈을 배분했다 하는 써머리 파일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잠깐 피디에프 파일 볼까요? 이러한 내용들은 도너들과 단체들에게 매년 분출합니다. 아름다운 재단에서도 역시 인터네셔널 포스팅으로 다 보내줍니다.

(재무제표 파일 오픈)

이것은 공인된 회계사들의 컨펌을 받아서 올립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도 구속력이 있습니다.

[Programs]

Programs	Grantseek
Arts & Culture	
Community Development	
Community Health	
Education	
Environment	
Social Justice	
Koshland Program	
Philanthropy & Nonprofit Sectors	
Special Projects & Funding Collaboratives	
Multicultural Fellowship Program	
Awards Programs	

샌프란시스코는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데, Arts&Culture, Community Development, Community Health, Education, Environment, Social Justice 6개에 집중적으로 배분합니다. 작년에 만난 분 중에, Arts&Culture 담당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스태프인데도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재단에서 그 분의 전문성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이죠. 프로그램 실행에 있어서는, 매달 이사회가 열리면 이사회가 결정을 합니다. 실사를 직접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프로그램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담당 스텝의 전문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 거구요. 예를 들어, '존 킬라키'는 프로그램 오피서 이구요, 한국말로는 감사죠. 경력은 다른 곳에서 일을 하시다 오셨기 때문에 모두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입니다. 대부분이 30~40대 정도로 나이가 있으시죠. 화려한 경력을 지닌 분들도 많지만 부작용이 있다면, 단체로 연을 맺고 장기적인 배분이 이뤄지는 것은 좋지만,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데에는 젊은 사람보다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잠깐 넘어가서 3쪽을 보시면 큰 재단은 어떻게 모금을 하는가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재단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모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인데요

'모금'에서 3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투명성입니다. 그 안에서 중요한 세가지는,

1. 재정보고서(재무제표)는 찾기 쉬운 곳에 위치시켜야 합니다.
2. 최신자료로 항상 업데이트 하여야 합니다.
3. 읽는 사람들이 읽기 쉽고, 알기 쉽게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전문성입니다.

재단에는 회계사, 회계 관련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즉, "우리는 이런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믿고 맡기세요."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많은 부자 기부자들 자신의 돈을 주식에 투자할 것이냐, 기부를 할 것이냐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주식에 투자하면 위험성은 높지만 수익성도 높죠. 하지만 세금을 내야 한다는 문제가 있구요, 지역재단에 넣으면 세금은 안내도 된다는 것이 그들에게 어필이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의 특징은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과 어딘가에 영향을 끼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얼마나 전문성을 지닌 분들을 데리고 있는지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성입니다.

이 재단에는 전문성이나 다양성이 있는 스텝들이 많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있는지 인종별로 명수를 올려놨다는 것이죠.

(About -> Who we are -> Diversity)

각 파트마다 인종별로 몇 명인지를 통계를 내어 올려 놓은 것을 볼 수 있죠. 이사회 같은 경우는 여자 6명, 남자 4명, 흑인 2명, 라틴 2명, 아시아 어메리칸 1명, 백인 5명 이런 식으로 부서별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역 특성에 적응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겠죠.

Board of Trustees:

- Women - 6
- Men - 4
- African American - 2
- Latino - 2
- Asian American - 1
- White - 5

Management Team:

- Women - 5
- Men - 1
- African American - 2
- Latina - 1
- Asian American - 1
- White - 2

Program Leadership:

- Women - 5
- Men - 2
- African American - 3
- Latina - 2
- Native American - 1
- White - 3

다음은 '배분'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배분은 단체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단체들을 위한 워크샵도 진행하구요, 어떻게 지원하는지와 스킬도 알려줍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구요, 어플라이하는 프로세스를 잠깐 보시면 주로 비슷하게 진행되는데요, 프로세스를 먼저 보실까요?

먼저 단체들은 intent to apply를 먼저 제출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1차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평가가 되면 8주 안에 통보가 됩니다. 30%정도의 지원자가 합격되면 다시 지원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제안서가 제출되면, 지원서를 받은 프로그램 담당자는 부가적인 정보를 단체에 요구하거나, 대부분의 경우에 단체를 직접 방문하는 일정을 잡기 위해 단체에 연락을 합니다.

2차 심사를 하고 마지막 최종 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통보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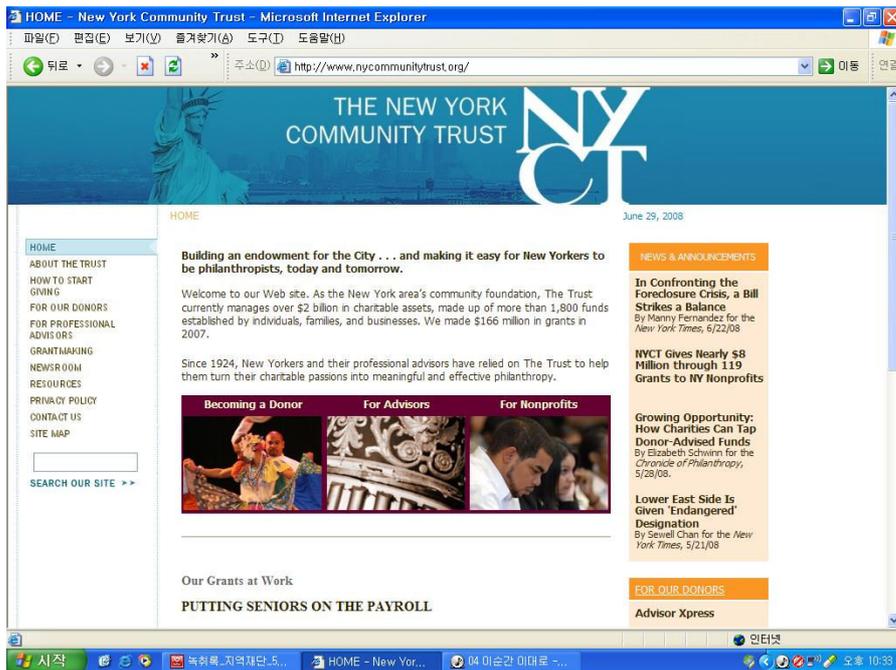
배분 기준은 단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워낙 규모가 크고 다양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규모가 넓습니다. 각 재단이 바라는 목표가 단체들을 선정 하는데 있어 까다롭게 요구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샌프란시스코를 브로드하게 한번 봤는데요, 맥에서 보시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체는 **The New York Community Trust**입니다.

뉴욕은 뉴욕을 지역으로 해서 만들어진 재단이겠죠. 미국에서 가장 큰 재단 중 하나입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지역은 다르지만 규모가 큰 재단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홈페이지)



(카테고리 설명)

재단들 홈페이지는 대개 공통된 특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타겟으로 하는 대상도 다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의 내용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누구일까?] 여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처음 **[Who we are?]**를 보세요. 항상 재단 홈페이지에서는 미션이나 그런 것들을 먼저 보는 게 순서 인 것 같아요. 그 재단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알면 우리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뉴욕은 1924년에 은행가들이 만든 재단이라고 합니다. 약 8~90년 전에 만들어진 가장 오래 되고 큰 파운데이션 중 하나라고 합니다. 지역재단에 대해서도 따로 설명을 해 났습니다.

미션은 6p 프린트에 나옵니다.

샌프란시스코만큼 굉장히 브로드한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의 목적은 뉴욕입니다. 다른 지역은 안합니다. 제가 뉴욕재단에서 보고 싶었던 것은 기금의 형태를 일목 요연 하게 정리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기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도 이러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Unrestricted Funds는 "어떤 곳에 이 돈을 썼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은 내지 않고 그냥 돈만 주는 형태입니다. 또 Field-of-Interest Funds는 "어떤 분야에 써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Donor-Advised는 기부자와 재단이 협상을 하게 되고 기부자가 자기의 욕구 표현하며 재단의 욕구도 수용하는 형태입니다. Designated Funds는 "어디어디에 꼭 써주세요" 라는 부탁과 함께 재단은 그 전달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재단이 가장 좋아하는 영역은 당연히 첫 번째 겠죠....ㅋ

보통 네 가지의 다양한 형태를 두고 고르게 됩니다.

운영비 비율은코스트라는 탭이 있어요. 자세하고 친절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언제나 펀드 타입에 관계없이 똑같은 운영비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천원을 내면 25원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운영비를 2.5% 사용합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또 다른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주식이나 이자 수익을 가지고 운영비에 넣습니다. 그

라면 운영비 책정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기부자들로 하여금 운영비를 낮추는 효과를 내고 그러면 기부자들은 내 돈 100%가 쓰여 졌다고 하여서 기부자들을 만족시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핸드아웃(8p) 투자방식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요..

1)기부의 많은 금액을 배분하고 싶은 기부자 2) 장기적으로 배분하고픈 기부자 3)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 기대하는 기부자

이렇게 다양한 기부자에 대해 투자방식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역할, 기능, 포맷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와 비교가 가능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재단인데요

Robin Hood Foundation입니다.

뉴욕에 있는 재단인데요, 젊은 사람들을 어필하는 이름을 갖고 있죠? 의적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구요 홈페이지를 보면 계속 돌아가는 것이 있죠. 통계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여줍니다.(중앙상단에 숫자가 계속 바뀌어 나타남) 1/5의 뉴욕커가 빈곤에 처해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학교를 못가고, 건강보험 혜택을 못받고...그래서 당신께서 액션을 취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 페이지)



미션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난' 입니다. 뉴욕지역의 진보적인 재단인데요, 재미있는 부분은 로빈훗의 자랑은 운영비를 전혀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회가 모금과 운영비를 다 대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자신의 돈을 "좋은 일에 썼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재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운

영되는 것을 바랍니다. 이 재단에는 "100% 당신이 기부한 모든 돈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갑니다." 라고 써어져 있습니다.

로빈훗은 진보적인 단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곳의 해결 방식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시스템을 만들어주는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베스트 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을 한번 볼까요? 빈곤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집중적으로 기금을 대는 수혜자는 아동과 청소년, 교육, 직장 보장, 생존 4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생존(서바이벌)을 넘어서서 교육이나 일자리 문제까지 관여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면 뉴욕에 있는 갖가지 문제들을 다 다루고 있는데, 돈을 냈던 단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들을 지원했는지를 보면 어떤 색깔을 지니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우스>

맨하탄 중심, 일종의 위성도시들 중 가장 가난한 곳(Bronx)으로 수감생활(어린이들을 감옥에 넣지 않고 대안 시스템) 패밀리 센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사이트라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분명하고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웹 디자인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화면 상단, 하단에) 두 번째가, 성공스토리를 계속 보여줘요. 내가 낸 돈이 정말로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 문제를 넘어서서 이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변화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나는 차라리 주는 죽는게 나았어요 코카인 중독자의 얘기...두 아이의 엄마이고, 한 아이는 중독의 상태로 태어났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삶이 구축이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뉴욕의 국립교육은 거의 무너진 상태라고 합니다. 할렘을 돌아다녔는데, 5, 6시가 넘어가면 무서워요. 아이들이 갈 곳이 없고, 길거리 문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취약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서관에서 살고 싶어요" 지금은 새로운 도서관이 생겼다. 빌게이츠 재단이 하고 있는 것이 교육 시설들을 리모델링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학교를 돌다가 충격을 받아서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런 성공 스토리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The Funding Exchange는 재단이 아니라 네트워크입니다.

가장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단체입니다.

기금을 가지고 만들어진 네트워크로써 1979년에 설립, 6개에서 지금은 16개 재단으로 이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목소리를 내는 활동까지 내용에 넣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단체가 아니에요. 진보적인 단체들은 돈이 없습니다.(한국도 마찬가지이죠) 많은 기부자들은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곳에 돈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보 단체들은 모여야 산다는 생각으로 서로 협력합니다. 왜 함께 하나면, 배분을 할 때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별 단체는 미국에 목소리를 내기 힘들지만, 16개 단체는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멤버 파운데이션)

어떤 단체들이 있나 볼까요 각종 펀드...크로스로드 펀드(한국분 운영),펀드 쪽 보여줌 각 지역마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vanguard]흑인들의 인권들을 위해 일하는 곳으로 홈페이지

이지는 별거 없습니다. 이 단체같은 경우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재단입니다. 굉장히 심플한 홈페이지 구성입니다. 이렇게만 만들어도 자신이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들어납니다.

가장 재밌다고 할 수 있는 펀드가 activist advised funds인데 실무자들이 정말 필요한 것들을 자신의 목소리로 펀드의 결정권을 가지고 갑니다. 활동가들이 배분위원회가 되어서 어디에 쓸 것인지 결정합니다. 계급, 인종 등..(빈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지원합니다.

[support social justice]

fe는 작은 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프로그램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 재단 일을 하는 것도 계획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Taproot Foundation**입니다.

좀 다른 것이, 이 재단은 기부자들 보다는 자원활동가가 맨 처음 나옵니다.

즉, 자원활동가와 비영리 단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조건 연결을 하는 재단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이나 영리 센터에서 일하는 전문가 분들을 비영리 센터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단체의 브랜드 제작, 팸플릿 제작, 인사정책, 경영관리, 회계 등 6개월 이상 영리에 있는 전문가들이 단체의 필요를 맞추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놀라운 것은, 지원 활동가의 97%가 활동을 마치고 다시 하겠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느낌을 받고 또 합니다. 이곳에서 철저히 그들을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 1.비영리 단체를 엄격히 심사하고 통과하면 전문성있는 자원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그 규모를 미리 결정해서 자원봉사자들과 잘 연결되도록 합니다.
- 3.데드라인을 결정합니다.

스테이지 1 - 비영리 단체 선정

1. 전략적 범위를 확인
2. 단체의 경영상태 확인
3. 재정 상태 확인
4. 명확하고 도움이 정말 필요한지 확인

스테이지 2 - 프로젝트를 준비한다

- 1.자원봉사자 팀 구성한다.

- 프로젝트 범위결정, 의사결정과정을 확인

2. 프로젝트에 맞춘 팀 구성

스태이지 3 - 프로젝트 kick0off and discovery

1. 클라이언트들을 만난다.

- 대상자가 원하는 것 듣는다.
- 원하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

2. 스테이크 홀더 인터뷰

인사정책 분석, 요약

스태이지 4 - 발전과 수행

1. 피드백 받음

2. 수정

3. 비영리 단체가 수용할 수 있도록 프레젠테이션

4. 프로젝트 끝나서 축하해 주는 일

스태이지 5 - 평가

설문조사 - 양쪽 모두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평가함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의미있는 일을 하고 있다.(97% 지원자가 또 하고 싶다고 함)

여기까지가 제가 선정했던 재단들이구요, 되도록 제가 봤던 곳 중에 의미 있는 곳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애를 써 봤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재단 중, 일부는 해외탐방 때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 재단만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을 보시고 지역의 단체들과 지원자들을 연결시켜 생각해 볼 기회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